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백두현(경북대학교)

1. 들어가기

1.1 융합의 뜻

현대 학문의 중요한 흐름의 하나로 학문간 융합이 관심사가 되었다. 분과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분야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통합과 창조에 대한 요구가 학문간 융합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분과 학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기 위해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학문간의 융합이란 응용학문과 기초학문의 소통, 예술과 과학의 소통, 인문학과 과학의 소통을 통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념을 창출하여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종전에 흔히 말해 오던 학제간 연구에서 더 나아간 적극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융합의 학문적 실천을 위해 ‘경계 허물기’, ‘가로지르기’, ‘뛰어넘기’와 같은 방법론 혹은 태도가 나타났다.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 학문간 통섭은 물론 서로 다른 영역의 이론의 융합을 통해 공통의 언어를 만들려고 시도한다. ‘뛰어넘기’는 기존 분과 학문의 이론과 개념을 추종하여 따라잡는 것(catch up)이 아니라 그 수준이나 경계를 뛰어넘어가는 것(jumping over)을 의미한다.¹⁾ 따라잡기가 아니라 뛰어넘기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뛰어넘기의 가장 효과적

1) 뛰어넘기의 좋은 사례로 애플사의 아이폰을 들기도 한다. 휴대폰 생산 능력에서 애플은 노키아나 삼성 등에 뒤졌지만 아이폰을 개발하여 단숨에 이들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아이폰은 기존 휴대폰과 다른 개념의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이다.

인 방법이 융합을 통해 산출될 수 있다고 본다. 뛰어넘기에 성공한 후 자신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데에도 융합의 방법론이 요구된다. 융합에 대한 탐색은 과학적 탐구에 수반되는 기술개발 분야 및 공학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융합’과 관련된 영어 술어에 ‘interdisciplinarity’와 ‘convergence’가 있다. 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 학문이 결합하여 새로운 학문 분야를 산출하는 것이다. 과학과 철학이 만나 과학철학이 되거나, 생물학과 화학이 만나 생화학이 되는 것이 그 예이다. ‘convergence’는 생명과학 등 이과 학문에서 ‘수렴’(收斂)이라 번역하는 것인데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이 하나에 귀일(歸一)되는 것을 뜻한다. 현대 학문에서 거론하는 융합은 후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²⁾ ‘통섭’(統攝)으로 번역되는 ‘consilience’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섭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물질적 혹은 과학적 차원에서 구체화된 용어가 ‘융합’이라 생각된다.³⁾

‘융합’과 관련하여 ‘통섭’, ‘통합’, ‘수렴’ 등에 대한 논의가 철학계에서 이루어졌으며(이중원 2010)(고인석 2010), 이정모(2010)는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이 용어를 검토하였다. 이 용어들 중에서 필자는 ‘융합’을 택하기로 한다.

‘융합(融合)’은 한자어 원뜻 그대로 ‘녹여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구리 78%와 주석 22%를 ‘녹여서 합치면’[融合] 놋쇠가 된다. 이 놋쇠로 생활의 도구인 놋그릇, 악기로 사용되는 징과 팽과리 같은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낸다. 융합은 이와 같이 서로 이질적인 것을 교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이다. 놋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와 주석의 정확한 비율을 알아내야 한다. 78:22라는 이 비율을 찾아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놋쇠를 만들어 낼 수 없다.

필자가 이 글에서 생각하는 ‘융합’은 서로 다른 학문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학문 분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필자는 출처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론, 전통과 경험 등의 이질적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

2) 참고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며 과학자로 살기 by strada 2010/12/16 07:54 chang4uegloos.com/2691462

3) 필자가 용어 문제를 전문적으로 논할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간단한 소개에 그친다.

은 창조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융합’으로 간주할 것이다.

인간이 창조한 특정 결과물에는 인류가 쌓아온 기술, 지식, 경험, 예술 등이 일체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타지마할, 조선의 경복궁과 같은 건축물은 당대의 이용 가능한 지식, 기술, 예술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산물이다. 훈민정음 역시 그러하다. 세종의 위대한 창안물인 훈민정음에는 성리학에 기반한 삼재론, 음양론 등의 역학 이론이 녹아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도입한 음성 분석 이론[성운학]과 문자학, 우리나라에서 개발·전승되어 온 차자법의 원리 등 다양하고도 이질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수렴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훈민정음이란 문자체계로 수렴되고 융합하여 새로운 창조물 훈민정음 문자체계가 탄생한 것이다.

필자는 융합성이란 측면에서 훈민정음이란 문제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훈민정음 창제자는 당대의 세계관을 함의한 철학적 원리, 중국에서 유입된 성운학과 문자학의 방법론, 한자를 이용한 조선의 우리말 표기 경험[차자법] 등을 절묘하게 융합하여 새로운 문자체계를 창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이론과 방법론이 어떻게 융합되어, 전혀 새로운 문자체계 훈민정음이 탄생하였는지 그 이면(裏面)을 밝혀 보고자 한다.⁴⁾

1.2 한국의 전통문화에 나타난 융합성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융합의 관점에서 한국문화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점을 먼저 고찰해 보는 이유는 한국인 혹은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성이 융합성에 있음을 주목하기 위함이다. 한반도에서는 북방 대륙과 남방 해양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상호 작용하였고 이들이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터전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인은 문화의 수용과 융합에 능하였으며, 다양한 차원의 융합을 통해 한국문화의 특성을 일구어 왔다. 이 절에서는 한국문화의 몇 가지 측면에 나타난 융합성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융합의 전통이 한국문화에 녹아 있는 중요 코드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3장에서 다

4) 필자의 이 논문은 중전에 나온 여러 가지 훈민정음 기원론을 총괄하고 종합하는 성격을 띤다. 중전의 훈민정음 기원론 중 학설로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필자가 생각한 것은 본고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를 훈민정음 문자체계가 한국문화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융합성의 맥락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예비 단계이다.

1) 원효의 화쟁회통

한국문화사에 있어서 융합의 관점에서 가장 연대가 빠르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원효의 화쟁회통(和諍會通) 사상이다.⁵⁾ 원효의 전기에 나타난 정황으로 보아 당시 신라에 수용되었던 유교와 도교에 대해 원효는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 원효대사는 불교 이외의 참기, 잡문, 외서 등을 모두 읽었으며, 988년에 중국의 찬녕(贊寧)이 지은 『송고승전』(宋高僧傳)에는 원효는 삼학(三學)에 두루 달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⁶⁾ 원효가 살았던 당시의 종교적 상황은 신라 토속의 천신신앙을 비롯하여 불교, 유교, 도교가 공존하던 시대였다(김용표 2010:52).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불교사와 신라의 당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상의 틀을 원효는 창출해 냈던 것이다. 불교를 바탕으로 하여 원효는 자신이 터득한 몇 가지 사상을 융합하여 화쟁회통의 사상체계를 이루여 냈다. 이 사상은 불교철학의 위대한 정점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신라의 삼국통 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원효의 깊은 학문과 불교적 수행이 어우러져 빚어낸 위대한 성취라 하겠다.

2) 수운 최제우의 동학

동학은 흔히 유불선을 통합하여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낸 것이라 한다. 그러나 동학은 유교, 불교, 도교를 모자이크식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수운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전통사상을 자유롭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한 것이라고 본다(신일철 2003:8).

동학은 유불선 등의 전통 사상을 새롭게 종합한 것이면서, 전통 시대의 원리인 ‘天, 天命, 天理’를 재창조하여 근대적 개인과 민족에 내재한 정신적 기둥을 세웠다(신일철 2003:13). 최시형의 ‘물물천 사사천’(物物天 事事天)’의 범천론

5) 화쟁(和諍)과 회통(會通)을 줄여 화회(和會)라 부른다. 김용표(2010:40) 참고.

6) 김용표(2010:25-27) 참고.

(凡天論)은 초월자로서의 신과 달리 天의 만유편재설(萬有遍在說)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동학의 원리가 현세화되어 노동과 생산, 일상사에 천(天)이 두루 작용한다는 이론을 형성하여, 양반 사회의 노동 천시를 극복하고 근대적 산업 활동과 개인의 인격을 긍정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동학은 근대적 개혁의 사상적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신일철 2003:23). 동학의 이런 사상은 수행자의 실천을 통해 획득된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토대로, 전통 종교와 사상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3) 한국인의 생활 문화에 나타난 융합성

전통 한옥의 구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온돌과 마루라고 한다. 온돌은 추운 북방의 생활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겨울을 나기 위한 주거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비해 마루는 더운 남방에서 여름을 나기 위해 습기 제거와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생활하고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마루로 설계된 것이 한옥의 기본 구조이다. 추운 지방의 온돌 문화와 덥고 습한 지방의 마루 문화가 한 건물 안에서 조화롭게 융합되어 있는 것이 한옥이다. 한옥의 이런 주거 구조는 남방적 생활 문화와 북방적 생활 문화의 융합을 보여 준다.

현대 도시의 아파트에도 온돌 문화가 흡수되어 있다. 아파트의 방바닥에는 보일러를 이용한 온돌 장치가 깔려 있다. 전통 한옥의 마루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거실 바닥은 나무 판재를 깔아 시설한다. 마루의 전통을 아파트 거실에 살려낸 것이다. 아파트라는 현대 가옥 구조에도 전통 한옥의 기본 구조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한국 음식 중 융합의 특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은 김치, 국, 비빔밥 등이다. 비빔밥은 대한항공의 기내식으로 제공되어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즐겨 먹는 인기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비빔밥은 콩나물, 각종 채소 무침, 깨소금 등의 양념, 참기름, 쇠고기 다진 것 등 온갖 재료를 섞어 밥에 비빈 것이다.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져 그 어느 맛도 아닌 새로운 맛을 낸다. 각종 소재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맛의 창조가 비빔밥의 묘미이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국이나

각종 찌개류도 혼합과 융합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김치는 또 어떨까. 온갖 양념과 재료를 혼합한 갖가지 김치가 있다. 멸치젓, 새우젓, 황새기젓 같은 젓갈류는 기본이고 생갈치를 김치에다 썰어 넣기도 한다. 각각의 김치는 다양한 재료가 혼합되어 그 어느 재료도 갖지 않은 특유의 풍미를 만들어 낸다.

음식에서의 융합은 서양 음식이나 중국 음식에서도 볼 수 있으나 한국 음식에서 훨씬 더 다양한 소재의 융합이 구현된다. 한국 음식에서 특히 발달되어 있는 각종 국은 다양한 소재의 융합으로 독특한 맛을 내고 있다. 해물탕이 대표적 사례이다. 해물탕은 혼합과 융합의 전형이다. 각종 조개류, 생선, 낙지, 콩나물을 비롯한 채소, 고춧가루를 비롯한 양념 등 많은 재료를 넣고 끓여서 해물탕을 만든다.

필자가 아는 어느 외국인이 한국의 음식에는 여러 재료를 섞는 것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은 적이 있다. 필자는 이렇게 답했다. “한국 민족이 원래 남방계와 북방계, 중국계 민족이 혼합되어 형성되었다. 현대 한국을 보아도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크 등등 아시아의 많은 나라 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혈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섞임의 전통이 한국인의 피에 흐르고 있다. 음식도 온갖 재료를 섞어 삭히고, 끓이고, 비비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의생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혼합과 융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현대의 예식장 결혼식에서 혼합의 양상은 찾을 수 있다. 신부는 하얀 면사포 웨딩드레스, 신랑은 양복 정장에 나비넥타이를 차려 입고 혼례를 올린다. 예식장 실내 분위기는 서양풍의 장식이 화려하다. 여기서 예식을 마친 후 바로 신랑 신부는 폐백실로 이동하여 전통 혼례복으로 갈아입고 어른들께 폐백을 올린다. 전통식과 서양식이 혼합된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의 의복 안에서 한복과 양복의 특성을 공유하는 복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 ‘개량 한복’이라 하여 한복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편의성을 도모한 디자인의 제품이 나왔지만 한복이라 하기 어렵고, 이것을 양복과의 융합으로 볼 수도 없다. 옷은 디자인의 특성상 서로 다른 양식이 융합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듯하다.

2. 훈민정음 문자 체계의 융합성 분석

2장에서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및 제자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융합하였는지를 논한다. 이를 위해 훈민정음 문자체계에 녹아 있는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것들이 어떤 양상으로 문자 체계에 포섭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본론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서술할 것이다. 첫째, 새 문자 창제의 바탕에 대해 간략히 논한다. 이 바탕은 융합 요소가 수용되는 틀 즉 거꾸집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녹아든 융합 요소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논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성리학 이론, 중국 성운학과 문자학 이론, 독창적 음성 분석 이론, 파스파 문자의 원리, 전통적 차자법의 원리 등으로 나누어 서술할 것이다.

2.1 문자 창제의 바탕: 애민(愛民) 정신과 민본(民本) 정책

훈민정음에 녹아든 성분으로 성리학 이론(삼재론, 음양론, 오행론), 성운학 이론, 파스파 문자의 원리, 독창적 음성분석 이론, 전통적 차자법과 중국 문자학의 영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새 문자 창제를 위한 거꾸집, 달리 말해 새 문자 창제의 근본 바탕은 세종대왕의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애민 정신과 민본 정책이다. 세종대왕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민생(民生)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종대왕 말년에 마지막으로 이룩한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어문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세종대왕의 민생을 돌보는 애민 정신은 훈민정음 창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없었다면 이 문자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 즉 애민 정신이야말로 훈민정음을 만든 거꾸집이라 할 수 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목적은 해례본의 어제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서문에서 세종대왕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펼칠 수 있도록 쉽게 익혀 일상생활에 쓰도록 이 문자를 만들었음을 명백히 밝혀 놓았다.⁷⁾

그리고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민생에 있음은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나오는 다음 문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가령 말하기를, “형살(刑殺)에 대한 옥사(獄辭)같은 것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문리(文理)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고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중략---) 형옥(刑獄)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옥리(獄吏)의 자질에 달려 있고, 말과 글자의 같고 다름에 있지 않은 것이오니, 언문으로써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인지 알 수 없사옵니다. (필자가 약간 의역했음)

최만리의 이 문장은 백성의 옥송(獄訟) 문서에 새 문자를 활용하려 했던 세종의 의도를 잘 드러내 준다. 조선시대의 옥송 문서는 요즘 말로 하면 소송과 수사에 따른 재판 관련 기록이다. 당시에 이런 문서는 이두문으로 작성되었기에 이두문을 알 수 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일쑤였다. 백성이 본인의 명운이 달린 옥송 문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하고, 세종대왕은 새 문자를 만들어 민생을 돌보려 한 것이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이 문자를 이서(吏胥)들에게 가르치고 이서 선발 시험에 훈민정음 과목을 부과했다. 이런 정책은 창제 의도의 구체적 실천이라 하겠다.

7)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 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2.2 융합 요소의 분석과 그 의미

2.2.1 성리학(性理學) 이론의 융합

해례본 제자해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天地之道，一陰陽五行而已，坤復之間爲太極，而動靜之後爲陰陽。(천지의 도는 한 음양과 오행인 것이니, 곤(坤卦)과 복(復卦)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태극이 동하고 정한 뒤에 음양이 되는 것이다.)

汎有生類在天地之間者，捨陰陽而何之。(무릇 천지 사이에 있는 목숨 가진 것들이 음양을 버리고 어찌하겠는가.)

故人之聲音，皆有陰陽之理，顧人不察耳。(그러므로 사람의 성음도 다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살피지 못할 뿐이로다.)

위 인용문에 나타난 ‘陰陽五行’, ‘坤復’, ‘太極’, ‘動靜’은 주역에서 연원된 성리학의 주요 개념들이다.⁸⁾ 필자가 ‘성리학 이론’이라 부른 것은 이런 용어를 포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필자의 이 논문에서 성리학 이론이란 훈민정음 창제에 활용된 주요 이론을 가리킨다. 훈민정음 창제자는 성리학의 핵심 이론을 새 문자 창제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다. 삼재론, 음양오행론 등 성리학 이론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서부터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의 바탕이 되어 있다. 훈민정음 문자의 분류체계를 설정하거나 문자꼴의 형상화, 문자 운용법 등을 모두 삼재론 및 음양오행론과 결합시켰다. 훈민정음 해례에서 성리학 이론은 문자 창제의 토대인 셈이다.

해례에 나타난 성리학 이론과 그것이 적용된 구체적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재론이다. 삼재론에서는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 구성 요소 혹은 우

8) 위 인용문에 나타난 천지의 도와 음양오행을 결합시킨 것은 주자(朱子)이지만, 천지의 도와 성음(聲音)을 결합시킨 학자는 주자가 아니라 소옹(邵雍)이다. 소옹의 황극경세서에 나타난 성음 이론이 위 인용문에 반영되어 있다. 天을 중성, 地를 초성에 결합시킨 것이나 언어 풍토설과 같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도 소옹의 이론에서 가져온 것이다(유창균 1989:79-80).

주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세 가지 요소를 천(天)·지(地)·인(人)으로 본다.⁹⁾ 삼재론은 훈민정음 창제 작업의 여러 국면에 적용되었다. 제자 단위를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눈 음절삼분법도 삼재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있다.¹⁰⁾ 그리고 중성의 기본자 ‘· — |’의 글자꼴을 각각 ‘천·지·인’과 결합시킨 것은 삼재론의 전형적 적용 사례이다. 합자법에서 초성·중성·종성을 모아 쓰도록 규정한 것 역시 삼재의 상호 작용에 의해 삼라만상을 이해하는 역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처럼 삼재론은 훈민정음의 제자 과정의 여러 국면에 흡수된 이론적 토대이다.

둘째, 음양론이다. 삼재론이 「역전」(易傳)에 근거를 두고 있듯이, 음양론도 역시 「역전」에 근거를 둔 역학의 핵심 이론이다. 하늘은 양(陽)을 상징하고, 땅은 음(陰)을 상징한다. 사람은 양과 음을 겸하여 있으니 남녀에 와서 다시 양과 음으로 나뉜다. 중성의 기본자를 하늘, 땅, 사람에 대응시킨 것에도 음양론이 내재되어 있다. 음양론은 기본자 ‘· — |’를 조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 때도 적용되었다. ·를 —와 |에 각각 조합할 때 —의 위는 양, 아래는 음이며, |의 밖은 양이고 안은 음이라는 해석에 따라 양모음과 음모음이 분류되었다. 이는 음양론이 가장 전형적으로 적용된 경우이다.

셋째, 오행론이다. 오행론은 초성의 기본자인 아·설·순·치·후의 오음(五音) 체계와 결합되었다. 해례 제자해에서 “무릇 사람의 소리는 오행에 근본을 두고 있기에, 사시(四時)와 합하여 어그러짐이 없고 오성(五聲, 궁·상·각·치·우)과 화합하여 어긋남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아·설·순·치·후’라는 오음 체계를 오행 ‘수목화금토’의 성질과 결합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내용은 그 논리가 아주 설득력 있게 전개되어 있다. 중성 11자에도 생성(生成)의 위수(位數)와 함께 오행이 각각 배정되어 있다. 초성과 중성에 오행론이 모두 적용된

9) 삼재론은 「역전」(易傳)(주역의 별명)의 ‘십익’(十翼)편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인간의 위치를 천지와 대등하게 보는 인문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10) 初聲有發動之義. 天之事也. 終聲有止定之義. 地之事也. 中聲承初之生. 接終之成. 人之事也. (초성에는 발동의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다. 중성에는 멈추어 그침의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다. 중성은 초성에 이어 생겨나 종성에 접하니 사람의 일이다.)

셈이지만 초성에 적용된 오행론은 각 소리의 음성적 성질과 오행의 특성을 교합하여 훨씬 설득력있게 진술되어 있다. 예컨대 초성의 하나인 후음에 오행 이론을 적용한 양상을 살펴 보자. 후음은 목구멍에 해당하며 깊고 축축하여 오행의 水에 해당한다. 후음은 소리가 허통(虛通)한 것이 마치 물이 허명(虛名)하여 흘러 통함과 같다. 목구멍과 거기서 나는 후음의 음가와 성질을 오행 중의 하나인 水의 성질과 결합시켜 그 유사성을 설명한 것이다.

넷째, 상수론(象數論)이다.¹¹⁾ 상수론은 주역의 패효를 수와 결합하여 표현한 방법을 말한다. ‘천지’(天地)는 역학에서 ‘양의’(兩儀)라 한다. 이 양의와 사람(人)의 합성으로 초출자 넷이 만들어진다. 초출자 넷은 역학에서 ‘사상’(四象)과 대응될 수 있다. 초출자에 재출자 넷을 합하면 여덟 자가 되는데 이 여덟자는 역학의 ‘팔괘’(八卦)에 대응된다(이정호 1975:81).

해례본에서 상수론이 적용된 보다 명백한 예는 중성 11자에도 각각 배정된 生成의 위수(位數)이다. 상수론에서 一三四五는 생위(生位)이고, 六七八九十은 성수(成數)이다. 홀수 一三五七九는 오행의 水木土火金에 각각 대응하고, 짝수 二四六八十은 오행의 火金水木土에 각각 대응한다. 해례본에서 중성에 적용된 생성(生成)의 수차(數次)와 오행의 결합 관계는 다음과 같다.

⚊ 天一 生水之位	⚋ 地二 生火之位	⚊ 天三 生木之位	⚋ 地四 生金之位
· 天五 生土之位	⚋ 地六 成水之數	⚊ 天七 成火之數	⚋ 地八 成木之數
⚊ 天九 成金之數	⚋ 地十 成土之數	無位數者	

이 패러다임은 삼재 ‘天·地·人’과 오행 ‘水·木·土·火·金’, 그리고 생성(生成)이라는 위수(位數)가 상호 연관을 맺어 중성 체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인식을 명료하게 보여 준다. 역학의 주요 이론을 통합하여 중성 체계를 파악한 것이다. 문자 체계와 역학의 핵심 원리를 이처럼 정교하게 융합시킨 것은 경탄할 만한 것이다. 천지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훈민정음 중성 체계에 고스란

11) 상수론은 소옹의 성음 이론이다. 그가 지은 황극경세서의 성음에 대한 이론은 세종조의 언어정책과 훈민정음 창제에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유창균:1989, 제2장 참고).

히 녹여낸 것은 훈민정음에 사상적 깊이를 부여한 성취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성리학의 네 이론은 역학의 핵심 이론이며,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자 우주만물의 생성과 변전(變轉)을 설명하는 사상이었다. 사람의 말소리와 이것을 형상화한 문자도 삼라만상의 하나로서 이 원리들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훈민정음 창제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제자 작업에서 이 이론들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성리학 이론이 제자 과정 단계에 융합된 양상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자 단계 역학이론	제자 전단계	제자 단계			운용 단계
		초성	중성	종성	
삼재론	음절삼분법	삼재의 天	삼재의 人	삼재의 地	합자법
음양론		剛柔(地道)	중성 11자에 적용 陰陽(天道)	음양순환 원리를 '중성부용초성'에 적용	
오행론		'아설순치후'의 오음론과 결합	중성 11자에 적용		
상수론			중성 11자에 적용		

2.2.2 성운학(聲韻學) 이론의 융합

음성에 기반을 둔 음소문자를 만들려고 하면 먼저 그 언어의 음성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인간 언어에서 낱말은 음성 덩이로 실현된다. 우리가 '술'의 발음이 [ʃɯɾɯ]이라는 세 단위로 구성되어 있음은 '술'이란 표기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지하는 것이지. '술'의 발음형 자체는 한 덩어리로 실현된다. 이 음성 덩이의 표기형을 모르거나 덩이를 분석해 낼 수 있는 도구(음성 분석의 방법)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술'을 구성하고 있는 음성 단위를 쪼갤 수가 없다. 쇠고기 덩이는 칼이 있어야 썰 수 있듯이 음성 덩이도 소리를 쪼갤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다. 15세기 당시의 세종대왕과 해례 편찬에 관여한 집현전 학자들이 익힌 음성분석 도구는 중국에서 수입된 성운학(聲

韻學)에서 가져왔다.

훈민정음 해례에서 새 문자 창제에 활용된 성운학의 방법론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초성(자음)을 분석하기 위해 성운학의 성모 분류체계를 이용하였다. 훈민정음 초성의 분류법인 ‘아·설·순·치·후’와 ‘반설’(半舌), ‘반치’(半齒)라는 용어들은 성운학의 성모 분류 체계와 동일하다. 그러나 성운학에서 성모를 36자모로 분류하지만 훈민정음의 성모는 23개로 설정되어 있다. 당시의 우리말 초성 체계에 부합되도록 변용(變容)한 것이다.

둘째, 소리의 청탁에 따른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에 의해 초성 체계를 나누는 것도 성운학에서 가져온 방법론이다.

셋째, 중성의 기술에 나오는 ‘합벽’(闔闢)은 성운학의 운모 기술 용어를 빌려온 것이다. 그러나 해례본에서 중성체계 파악 및 그것의 음가 기술에 사용된 ‘설축’(舌縮), ‘성심’(聲深), ‘구축’(口蹙), ‘구장’(口張) 등은 성운학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후술).

넷째, 해례본에서 방점 표기와 그 음가를 설명할 때 사용된 ‘평상거입’(平上去入)은 성운학의 사성에서 가져온 용어이다. 사성법의 용어(평성, 거성 등)를 가져와 당시 조선어의 운소를 기술하였으되, 그것의 실질 음가는 조선어음의 실제에 맞게 변용하였다.

앞 절에서 논의한 성리학(性理學) 이론은 새 문자의 기반 이론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성운학 이론은 당시의 조선 어음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된 실질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와 『동국정운』 및 『홍무정운역훈』의 편찬 등의 작업은 당시 학자들이 성운학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가능했던 작업이다. 훈민정음 반대 상소를 올린 최만리를 불러다 놓고 세종은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四聲七音)에 자모가 몇 개 있는지 아느냐?”라고 꾸짖듯이 물었다. 이것은 세종이 성운학 이론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성운학에 대한 세종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2.2.3 독창적 음성분석 이론의 융합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것은 모두 외래의 이론이나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훈민정음에 유입되어 녹아든 요소들이다. 이런 요소들 이외에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에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이 문자에 융합시킨 음성 분석 이론과 방법론이 있다. 독창적 음성 분석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초성의 음성 기관 상형론이다. 아음의 기본자 ㄱ을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설음의 기본자 ㄴ을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뜬 것이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음방법 및 음성기관 상형론은 훈민정음 창제자가 이룩한 독창적 관찰의 결과이다.

둘째, 초성 기본자에서 1,2단계의 가획을 할 때 적용된 기준 ‘厲’의 개념 역시 독창적 방법론이다. ㅋ은 ㄱ보다 소리가 약간 더 세게 나오므로 가획을 하였다. ㄴ과 ㄷ, ㄷ과 ㅌ, ㄹ과 ㄹ, ㄹ과 ㄹ 등도 모두 그 세기에 따라 가획한 것이다.¹²⁾ ㄴ-ㄷ-ㅌ은 ‘厲’의 정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지므로 획을 하나씩 더한 것이다.¹³⁾

셋째, 중성의 음가 기술과 대립관계 파악에 사용된 설축(舌縮), 소리의 깊고 얇음을 표시한 성심과 성천(聲深과 聲淺), 입술의 오무림과 펼침을 표기한 구축과 구장(口臙과 口張) 등과 같은 술어 역시 독창적으로 개발된 음가 기술 방법이다.

훈민정음 창제자는 성운학 이론을 활용한 것 이외에도 나름대로 독창적인 음성 분석과 음가 기술 방법론을 개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독창적 음성 분석 방법론이 기존 성운학의 체계와 적절하게 융합되면서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체계를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12) ㄱ比ㄴ. 聲出稍厲. 故加畫. ㄴ而ㄷ. ㄷ而ㅌ. ㄹ而ㄹ. ㄹ而ㅍ. ㅍ而ㅑ. ㅑ而ㅓ. ㅓ而ㅕ. ㅕ而ㅗ. ㅗ而ㅛ. 其因聲加畫之義皆同.

13) ‘厲’의 정도를 값으로 매긴다면 ㄴ(0)-ㄷ(1)-ㅌ(2)가 될 것이다.

2.2.4 파스파 문자가 지닌 구조적 특성의 융합

파스파 문자는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칸이 몽고어를 적기 위해 승려 파스파에게 명하여 만든 것이다. 1269년에 반포된 파스파 문자는 티베트 문자를 모방하여 그 자형이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 티베트 문자는 산스크리트 문자를 모방한 것이어서 파스파 문자는 산스크리트 문자와 유사성이 있다(최영애 2003:98). 창제 당시의 파스파 문자에는 41개의 자음자와 모음자가 있었으나 나중에 다른 언어의 음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가 추가되어 56개 자모에 이르렀다.

파스파 문자가 훈민정음 창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논의에는 Ledyard(1965/1998, 1997), 유창균(1968), 鄭張尙方(1998), 최영애(2003), 송기중(2009), 정광(2008, 2009) 등이 있다. 파스파 문자와 훈민정음의 영향 관계를 연구한 위 업적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삼분법 및 종성부용초성의 공통성

삼분법에 대한 깊은 논의는 임용기(1991, 199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삼분법은 파스파 문자로 표기된 운서 『蒙古字韻』에서 확립된 것이다(유창균 1979, 최영애 2003:104-105). 한 음절을 성모와 운모 이분법으로 나누는 중국의 기존 운서와 달리 『몽고자운』은 종성을 분리 표기하는 삼분법을 택했으며, 이것이 훈민정음의 음절 삼분법에 채용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영애(2003:105)는 『몽고자운』에서 ‘m, n, ng, w, j’를 전사한 파스파 글자 다섯 자모는 성모로도 쓰이고 동시에 운모로도 쓰임을 지적하고, 이것은 “훈민정음의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파스파 문자의 이 다섯 글자는 훈민정음 종성부용초성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과 차이가 크다. 두 문자에서 공통적인 것은 ‘m, n, ng’에 해당하는 세 글자뿐이다. 그러나 파스파 문자의 ‘w’와 ‘j’에 해당하는 훈민정음 글자는 없으며 여기에 가장 가까운 ‘ㄱ’과 ‘ㄴ’은 종성에 전혀 쓰이지 않는다(유창균 1979).

송기중(2009:62-63)은 파스파 문자가 초성 글자를 종성 표기에도 쓴 점,

모음 글자를 별도로 만든 점이 훈민정음과 공통적이라 하였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파스와 문자의 삼분법과 초성자가 종성자 표기에 쓰인 점이다. 훈민정음의 삼분법의 기원을 파스와 문자체계에서 찾는 위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 파스와 문자로 한자음을 표기한 『몽고자운』에 영향을 받아, 조선에서는 훈민정음으로 한자음을 표기한 『홍무정운역훈』, 『사성통해』 등을 편찬하였다. 이런 운서 번역 과정에서 훈민정음의 삼분법은 당시에 강력한 권위를 가진 『몽고자운』의 표기체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음절 삼분법은 앞에서 언급한 성리학의 삼재사상과 관련되어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음운 분석의 기술에서는 『몽고자운』의 삼분법을 취하고, 여기에 다시 삼재론이라는 성리학적 관점을 융합한 것이 훈민정음의 음절 삼분법이라 하겠다.

종성부용초성의 원리도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파스와 문자와 훈민정음의 차이가 있지만 파스와 문자의 원리를 훈민정음 창제자가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종성에 초성을 다시 쓰는 원리를 가져와 실질적 내용에서는 조선 어음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용한 것이 훈민정음의 종성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② 종성자의 연관성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파스와 문자와 훈민정음의 초성자간의 연관성을 논한 것이었다. 송기중(2009:59-60)는 파스와 문자가 동북아시아 문자 중 모음 글자를 처음 분리해서 만든 점을 지적하고,¹⁴⁾ 발성 부위의 순서에 따른 기본 모음의 책정이 파스와 문자와 훈민정음의 공통점이라 하였다. 파스와 문자의 자음은 모음 ‘a’가 결합한 음운 단위(ka, ta 등)를 기본으로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모음이 결합하지 않은 자음만으로 된 글자를 만들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문자사에서 처음이라 하였다(송기중 2009:54). 그리고 파스와 자는 반모음자(j, w)에 해당하는 글자를 별도로 만들었지만 훈민정음은 반모음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송기중 2009:60-61). 이는 최영애(2003:105)에

14) 그러나 파스와 문자가 음절문자의 성격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파스와 문자의 자음자는 항상 모음 -a와 결합된 형태로 제자되었다. 그리하여 유모자(모음자)에 a에 대당되는 글자를 만들지 않았다. 즉 파스와 문자는 훈민정음처럼 완전한 음소 문자가 아니다.

서 언급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정광(2009)은 훈민정음 중성자와 파스파의 모음자 간의 체계적 유사성에 주목하였다. 그는 『몽고자운』 말미에 첨가된 일곱 개의 유모자(喻母字)와 훈민정음의 중성 일곱자(· ㅡ ㅣ ㅏ ㅓ ㅗ ㅛ)가 그 개수와 모음조화의 대립관계에서 서로 일치한다고 보았다. 즉 훈민정음 중성자 일곱 개는 파스파 문자의 유모자 일곱 개와 체계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광(2009:233)은 티베트 문자 등 한자를 변형하여 만든 표음자들이 성(聲)과 운(韻)을 나눈 이분법임에 비해 파스파 문자는 유모를 독립시켜 따로 만든 점은 진일보한 것이고, 훈민정음은 중성을 독자적 단위로 인정하여 초성과 종성에 대비시킨 것은 대단한 음운론적 성취라 평가하였다. 파스파 문자의 유모가 훈민정음 중성에 대응하며 양자 간의 체계적 상관성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특성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파스파 문자의 일부 자음자와 달리 파스파 문자의 유모자와 훈민정음의 중성자 간의 글자꼴 유사성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③ 자음 글자꼴의 유사성 문제

파스파 자모의 몇몇 글자꼴과 훈민정음 초성의 유사성에 처음 주목한 이는 Ledyard(1965/1998)이다. 그는 훈민정음의 ‘ㄱ, ㄷ, ㄹ, ㅅ, ㅈ’과 파스파 문자의 ‘g, d, l, s, b’를 표상하는 글자가 서로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기문(1974:7-8)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훈민정음 ‘ㄷ, ㄹ’과 파스파의 ‘d, l’의 유사성이 특히 주목되었다.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와의 유사성은 유창균(1966)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최근 중국 학자가 이를 인용하여 언급하기도 했다.¹⁵⁾

Ledyard는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간의 유사성은 지적했지만 파스파 문자로부터 훈민정음이 유래된 것이라고 본 것은 아니며, 이 유사성이 훈민정음의 독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글자꼴의 유사성만으로 보자면, 파스파

15) 鄭張尙芳(1998:167)은 훈민정음 자모 ‘ㄷ ㄹ ㅈ ㅅ ㅊ’의 자형과 네모꼴이 되는 합자 형식이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 최영애(2003: 105쪽)에서 재인용함.

문자에서 ‘ng’를 나타내는 글자가 훈민정음의 ㄴ과 더 비슷하고,¹⁶⁾ 파스와 문자의 ‘ᄃ’를 나타내는 글자가 훈민정음의 ‘ㄷ’자와 비슷하다.¹⁷⁾ 그리고 파스와 문자에서 모음 ‘e’를 나타내는 글자는 훈민정음의 ‘ㅓ’와 또한 비슷하다.¹⁸⁾ 굳이 글자꼴의 유사성을 다 지적하려면 음가가 전혀 다른 글자간의 유사성까지 언급했어야 했다. 선행 연구들은 두 문자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음가와 글자꼴이 서로 일치하는 극소수 예를 지나치게 부각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기문(1974:7-8)에서 지적되었듯이 훈민정음의 가획자 중 몇 개가 유사성이 있고, 이런 유사성은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스와 문자와의 유사성은 매우 제한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파스와 문자와 훈민정음 간 개별 글자의 유사성은 그리 중요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오히려 두 문자가 모두 글자꼴이 正方形이라는 점이 주목될 만하다(이기문 1974:8).

정광(2008, 2009)은 일련의 발표를 통해 파스자 문자와 훈민정음의 초성 및 중성체계의 관련성을 논하였으나 글자꼴에 있어서는 훈민정음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송기중(2009:62)은 일부 자모 획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훈민정음의 글자꼴 기원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신문자는 기존 문자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는 정도에서 훈민정음도 파스와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파스와 문자의 자음자와 훈민정음 초성자 간의 유사성은 전혀 체계적이지 않다. 음가가 전혀 다른 몇몇 글자 간에 형태적 유사성이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 볼 수 없다. 두 문자의 꼴이 모두 정방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파스와 문자의 유모와 훈민정음 중성자는 글자꼴에는 유사성이 전혀 없고, 중성자의 개수 및 모음조화에 나타난 부분적인 유사성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관찰에 의거하여 훈민정음의 글자꼴에 대한 파스와 글자꼴의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글자꼴에 있어서 파스와 문자의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자는 파스와 문자의 구조적 원리 중 삼분법¹⁹⁾ 및 중성부용초성을 수용했던 것으

16) ㄴ

17) ㄷ

18) ㅓ

19) 파사파 문자가 유모자(중성자에 해당)를 초성 및 중성과 분리하여 별도로 제자한

로 생각된다. 이기문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자가 파스파 문자를 ‘참조’한 정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²⁰⁾ 그러나 훈민정음이 파스파 문자 체계의 중요 원리 혹은 특성을 수용한 것이라 본다면 이것은 ‘가벼운’ 참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비중 있는 영향을 미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2.5 전통적 차자법 원리의 영향

1) 이두의 영향

훈민정음 창제는 전통적인 한자 차자법인 이두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최만리의 훈민정음 반대 상소에 이두와 언문을 비교하여 후자를 비판한 내용이 있다. 설총이 만든 이두는 비루하고 속되지만 한자와 분리된 것이 아니어서 이두를 배우면 학문 흥기(興起)에 도움이 된다. 그는 언문이 비록 고전(古篆)을 본뜬 것이라 하나 음을 부리고 글자를 합치는 것이 모두 옛것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최만리의 이런 주장을 꾸짖는 내용이 실록 기사에 나오는 바, 세종은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데 있었고, 지금의 언문도 또한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편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는 신라 설총이 이두를 비로소 지어 관부와 민간에서 이를 빌려 써 왔지만 막히고 껌껌하여 비루하고 근거가 없는 것이며, 훈민정음이 창제됨으로써 이두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였다.²¹⁾

이런 기록에서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에는 이두의 전통과 그것을 사용해 온 경험의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새 문자를 통해 이두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세종의 의도는 훈민정음 창제 후 서리(胥吏)들에게 이 문자를 가르치고, 서리 선발 시험에 훈민정음을 부과한 사실에서 증명된다.

2) 차자법의 종성 분리 표기와 음절 삼분법의 관련성

이두를 포함한 향명(鄉名) 표기에 고유어의 어말자음을 분리 표기하는 방법

것도 삼분법의 원리에 포함된다.

20) 이기문(1974:8)은 “훈민정음 창제자는 당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한자, 파스파 문자모 등 여러 문자를 참고하였으나 이 영향은 결코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21)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官府民間至今行之 然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비루) 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

이 있다. 이른바 말음첨기라 부르는 다음 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白雲音(흰 구름): ㅍ이 종성 ㅁ을 표기 (찬기과랑가)
去隱 春(간 봄): 隱이 어미 ㄴ을 표기 (모죽지랑가)
道乙羅叱(도랏): ㅈ이 종성 ㅅ을 표기 (月令, 二月)(향약집성방 79)
奪叱良乙(앗아늘): ㅈ이 종성 ㅅ을 표기 (처용가)

중국 성운학에서는 반절법을 통해 한자음의 성모와 운모를 이분법 체계로 표기하지만, 훈민정음은 초성, 중성, 종성을 구별하는 음절 삼분법을 채택하였다. 이 삼분법은 앞서 본 파스와 문자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대 국어 이래 차자 표기법에서 통용되어 온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종성을 분리하여 음가자(音假字)로 표기하는 전통이 일찍부터 존재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통은 우리말의 종성이 중성과 구별되는 독립적 단위라는 음운론적 인식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종성을 독립시킨 삼분법의 채택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3) 각필 구결자와의 관련성 문제

석독구결과의 연관성이 깊은 각필구결(혹은 부호구결)의 자형이 훈민정음 글자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승재 2001).²²⁾ 이승재(2001:102, 104)에서 제시한 훈민정음과 부호구결 사이의 유사 형태를 몇 개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훈민정음의 ‘ㄱ’은 부호구결의 경계선 ㄱ 또는 구두선 ㄱ과 일치한다.
훈민정음의 ‘ㄴ’은 부호구결의 경계선 ㄴ과 일치한다.
훈민정음의 ‘ㄷ’은 부호구결의 경계선 ㄷ과 일치한다.
훈민정음의 ‘ㅁ’은 부호구결의 테두리선 ㅁ과 일치한다.
훈민정음의 ‘.’는 부호구결의 단점 .와 일치한다.
훈민정음의 ‘ㅡ’는 부호구결의 단선 ㅡ와 일치한다.

22) 이 설은 안명철(2005)에서도 검토된 바 있으나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지는 않았다.

훈민정음의 ‘ㅣ’는 부호구결의 단선 ㅣ와 일치한다.

부호구결의 이러한 형태가 훈민정음 자형과 놀랍도록 비슷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형태의 유사성은 앞의 기일성문도에서도 본 바 있다. 이와 같은 형태적 유사성이 해례본에 명시된 초성의 음성기관 상형 및 중성의 삼재 상형론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훈민정음 문자와 부호구결자 사이에 형태적 유사성이 있는 것들이 음성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상호간에 아무런 유연성(類緣性)이 없다는 점이다. 초성자 ㄱ과 부호구결자 ㄱ은 기능과 음가에서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 점은 다른 모든 부호구결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떤 형태의 부호이든 간에 그 부호에서 쓰이는 형태는 점과 선(사선, 수직선, 수평선 등)이 기본이다. 이런 점에서 부호구결이 훈민정음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설은 수용하기 어렵다.

파스와 문자가 훈민정음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음절 삼분법과 중성부용초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조선한자음 교정 사업(동국정운 편찬)과 중국 표준한자음 번역 사업(홍무정운역훈 편찬)에 파스와 문자로 한자음을 표기한 『몽고자운』이 중요 참고서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각필구결 자형이 훈민정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의는 추론 수준을 넘어서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2.2.6 중국 문자학(文字學) 원리의 영향

이 절에서 말하는 문자학은 중국에서 비롯된 육서법(六書法) 등 한자의 구성 원리와 기타 다른 외국 문자의 영향을 포괄하여 가리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육서법과 소옹의 황극경세서에 나오는 기일성문도(起一成文圖)이다. 육서법과 기일성문도는 선행 연구에서 훈민정음의 글자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다. 문자에 관한 이론들이 훈민정음에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2.1절에서 다룬 성리학 이론은 훈민정음 창제의 근거로 창제자 및 해례 편찬자들이 표방했던 것으로 해례본 본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자학의 영향은 성리학 이론의 압도적 영향과 그 성격이 다르다. 성리학 이론이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 전체의 바탕 이론이라면, 문자학 이론은 훈민정음의 글자꼴을 정할 때 작용한 것이다. 이 절과 그 이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훈민정음의 글자꼴을 연구한 선행 학자들의 학설을 토대로 융합성의 관점에서 이들을 재해석한 것이다.

1) 한자의 육서법

한자의 육서법이 훈민정음 글자꼴을 만들 때 작용한 원리라는 연구로는 유창균(1966), 강신항(1984/2003), 안병희(1990), 안명철(2006) 등이 있다.²³⁾ 한자의 육서법에 해당하는 용어로 해례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상형’과 ‘가획’이다.

육서법에 해당하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 가차, 전주 등이 훈민정음 글자꼴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해석은 학자간에 차이가 있다.²⁴⁾ 음성기관을 상형한 초성 기본자(ㄱ ㄴ ㄷ ㄹ ㅁ ㅂ)를 상형으로 보는 데는 학자간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상형자는 음성기관의 움직임이나 그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점에서 사물의 실제 형상을 본뜬 한자의 상형자(山, 水, 人)와 그 성격이 같지 않다. 용어는 같은 ‘象形’이되 그 내용이 다르다.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문자체계를 해석하여 육서법에 대당(對當)시킨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중성의 기본자(· 一 |)를 지사(指事)로 보는 데는 위 세 학자의 견해가 같다. 天地人의 개념을 이 글자에 내포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사자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초성 가획자(ㅋ ㆁ ㄷㅌㅍ)를 유창균(1966)은 가획, 안병희(1990)는 형성(形聲), 안명철(2006)은 지사로 각각 보았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 글자들의 제자 원리를 ‘가획’으로 명기했기 때문에 초성 가획자는 육서법의 가획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글자꼴 자체만으로 보면 가획이 틀림없지만, 가획에 의해 생성된 글자의 음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음가를 중시하면 ㅋ, ㆁ 등은

23) 유창균(1966),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진단학보』 29·30, 진단학회, 371-390.
강신항(1987),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안병희(1990),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하여, 『강신항 교수 회갑 기념 국어학 논문집』, 135-145.

안명철(2006), 훈민정음 제자원리와 육서,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1-16.

24) 이에 대한 정리는 안명철(2006) 참고.

형성자로 볼 수도 있다. ㅋ, ㆁ 등은 가획에 의해 대응하는 기본자와 그 음가가 다른 것이 되었지만, 가획된 획이 한자의 형성자에서처럼 특정 음가를 표시하는 성부(聲符)라 하기 어렵다. 초성 가획자를 지사로 보려면 개념의 우여곡절이 요구되어서 우리의 인식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해례본에 명시된 ‘상형’과 ‘가획’의 실질적 내용이나 성격이 육서법의 상형과 가획과 매우 이질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자는 육서법의 개념과 원리를 활용은 했으며 음소문자에 알맞도록 창조적으로 변용한 것이라 하겠다.**

중성의 초출자와 재출자에 대해 유창균(1966)은 ‘가점’(加點)이라 했고, 안병희(1990)는 회의(會意), 안명철(2006)은 지사(指事)라 하였다. 필자는 글자꼴 생성 원리를 기준으로 보면, 중성 초출자(ㄱ ㅋ ㆁ ㄷ)와 중성 재출자(ㄴ ㄷ ㅌ ㄴ), ㅌ 상합자(ㄴ ㅌ ㄴ ㅌ)를 모두 가획자로 간주할 수 있다. 중성 초출자와 재출자는 모두 ㆍ를 하나 또는 둘을 가획한 것이고, ㅌ 상합자는 ㅌ를 가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견해도 문제가 있다. 초출자는 음성적 공통성이 분명치 않지만 재출자 넷은 모두 상향 반모음 j(on-glide j)를 공유하며, ㅌ 상합자는 모두 하향 반모음 j(off-glide j)를 가진다.²⁵⁾ 이런 음성적 특성을 중시하면 재출자와 ㅌ 상합자는 형성자로 볼 수도 있다. 재출자에 첨가된 ㆍ와, ㅌ 상합자에 첨가된 ㅌ가 음가 [j]를 표시하는 성부(聲符)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성 합용자(ㄱ ㄴ ㅌ ㅌ 등), 초성 합용자(ㅌ ㅌ ㅌ 등), 초성 연서자(ㅌ 등)를 육서법에 대응시키는 것도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창균(1966)은 초성 합용자와 초성 연서자는 ‘회의’로 보았고, 중성 합용자(연서자)와 합용병서자 일부를 ‘형성’으로 보았다. 안명철(2006)은 초성 합용자, 초성 연서자, 중성 합용자를 모두 ‘회의’ 글자로 간주하였다. 안병희(1990)는 이 글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처리가 애매했기 때문에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세 부류는 육서법의 어느 것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 뜻글자인 한자의 조자(造字) 원리가 소리글자인 훈민정음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세 부류를 육서법에 굳이 대당시킨다면 회의 글자로 봄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25) ㅌ 상합자는 관점에 따라 첨가된 ㅌ를 단모음 i로 보는 견해도 있다.

훈민정음 문자체계의 이런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육서법과의 대응 관계를 세워 보면 다음과 같다.

상형: 초성 기본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지사: 중성 기본자 (ㆍ ㅡ ㅣ)
 회의: 초성 합용자 (ㅅㅅ ㅅㄷ ㅅㅌ ㅅㅍ ㅅㅈ ㅅㅊ ㅅㅋ ㅅㆁ)
 중성 합용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가획: 초성 가획자 (ㅋ ㆁ ㅊ ㅌ ㅍ ㅍㅌ ㅍㅍ)
 중성 초출자 (ㅏ ㅑ ㅓ ㅕ)
 중성 재출자(ㅏㅑ ㅓㅕ)
 중성 ㅏ 상합자(ㅏㅑ ㅓㅕ)

이런 필자의 견해는 훈민정음에 적용된 육서법의 내용을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드러낸 것으로 생각한다. 위 분류는 글자가 표상하는 음가보다 글자꼴의 형성(形成) 원리를 중시한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훈민정음에는 육서법 중 네 가지가 적용되어 있다. 한편 글자의 음가를 중시하여 중성 재출자와 ㅏ 상합자를 형성(形聲)으로 처리하면 다섯 가지가 된다. 필자가 위와 같이 육서법 적용 양상을 분석해 본 것은 육서법에 의해 훈민정음을 재분류하려는 것이 아니라 육서법의 원리가 훈민정음 문자체계에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세종대왕은 육서법에 의한 한자의 조자(造字)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원리를 창조적으로 변용하여 훈민정음에 융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 중 회의 글자에 배당된 초성 합용자 (ㅅㅅ 등)과 중성 합용자 (ㅏㅑ 등)이 육서법의 회의법과 가장 거리가 멀다. 그리고 위의 가획에 배당된 중성 재출자(ㅏㅑ ㅓㅕ) 및 상합자(ㅏㅑ ㅓㅕ)는 그 원리상 ㅅ등과 같은 회의에 배속시킬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된다. 표음문자를 표의문자의 원리와 역지로 결부시키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한자 육서법과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관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2) 기일성문도(起一成文圖)

중국 문자학이 훈민정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또 하나의 자료는 기일성문도(起一成文圖)이다. 기일성문도(起一成文圖)는 송나라 정초(鄭樵)가 지은 『통지』(通志) 35권의 육서략(六書略) 제5에 실려 있다.

通志卷三十五		宋 右 迪 功 郎 鄭 樵 撰		六書略第五		起一成文圖		欽定四庫全書		通志		正折為		側		則為		矣		引引則成		道陰陽之理也		因文成象圖	
衡為一從為		而窮折一為		此居月切了从		至		正折為		側		則為		矣		引引則成		道陰陽之理也		因文成象圖					
一		及反		及		至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反ノ爲ㄱ(房必切) (ノ를 뒤집으면 ㄱ이 된다.) (방필절=비)
至ㄱ而窮. (ㄱ에 이르러면 막힌다=끝난다.)

折一爲ㄷ(音及) (一를 꺾으면 ㄷ이 된다. (음은 급)
反ㄷ爲ㄴ(呼旱切) (ㄷ을 뒤집으면 ㄴ이 된다.) (호한절=한)
轉ㄴ爲ㄹ(音隱) (ㄴ을 회전하면 ㄹ이 된다.) (음은 은)
反ㄹ爲ㄷ(居月切 從此見了部) (ㄹ을 뒤집으면 ㄷ이 된다.) (거월절=겔)
至ㄷ而窮. (ㄷ에 이르러면 막힌다=끝난다.)

折一爲ㄷ者側也 有側正(一를 꺾으면 ㄷ이 되는데 옆으로 꺾은 것이다. 여기
에는 옆으로 꺾는 것과 바르게 꺾는 것이 있다.)
正折爲ㄷ 卽ㄷ字也 · 又音帝 · 又音入 (一를 바르게 꺾으면 ㄷ이 된다. 이는
곧 ㄷ(면) 자이다. 음은 ‘제’나 ‘입’이다.)
轉ㄷ爲ㄴ(側加切) (ㄷ을 회전하면 ㄴ이 된다.) (측가절=차)
側ㄴ爲<(音畎)(ㄴ을 옆으로 하면 <이 된다. (음은 견)
反<爲>(音泉)(<을 뒤집으면 >이 된다. (음은 천)
至>(泉)而窮. (>(천)에 이르러면 막힌다=끝난다.)

一再折爲ㄷ(五犯切) (一를 거듭 꺾으면 ㄷ이 된다.)
轉ㄷ爲ㄷ(口犯切) (ㄷ을 회전하면 ㄷ이 된다.) (구범절=검)
側ㄷ爲ㄷ(音方)(ㄷ을 옆으로 하면 ㄷ이 된다.) (음은 방)
反ㄷ爲ㄷ(音播)(ㄷ을 뒤집으면 ㄷ이 된다.) (음은 파)
至ㄷ而窮. (ㄷ에 이르러면 막힌다=끝난다.)

引一而饒合之 方則爲ㄷ(音圍)(一를 끌어서 완전히 합하여 모나게 하면 ㄷ이
된다. (음은 위)
圓則爲ㄷ(音星) (一를 둥글게 하면 ㄷ이 된다.) (음은 성)
至ㄷ則環轉無異勢一之道盡矣. (ㄷ에 이르러면 돌리고 굴리는 것에 다른 형세
가 없어지고 一의 길이 다한다.)
· (音拄)與一偶 一能生 · 不能生, 以不可屈曲, 又不可引, 引則成 ㄷ, 然 · 與一
偶, 一能生而 · 不能生, 天地之道陰陽之理也 (· 一 ㄷ) [· (음 주)는 一와 짝
이다. 一는 능히 (다른 것을) 낳지만, ·는 낳지 못하여 굴곡이 불가하고 당
김도 불가하다. 당기게 되면 곧 ㄷ이 되어 버리지만 그러나 ·는 一와 짝일
뿐이기에 一는 능히 낳고 ·는 낳지 못하니 이는 천지의 도리요 음양의 도
리다.]

‘起一成文’은 말 그대로 “一로부터 文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모든 한자의 근본을 ‘一’에 두고 이로부터 다른 글자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一’을 여러 가지로 굴러(꺾고, 회전하고, 뒤집는 등) 온갖 한자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결과로 생성된 자소(字素)들은 훈민정음의 여러 글자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글자들과 위 기일성문도에 나오는 글자꼴이 서로 비슷한 것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따져 보면 차이가 매우 크다. 기일성문도의 ㄱ은 一(일)을 꺾은(折) 것이고, ㄴ은 ㄱ을 ‘反’하여 다시 ‘轉’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훈민정음 초성자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상형한 것(象舌根閉喉之形)이고, ㄴ은 혀가 위턱에 붙는 것을 상형한 것(象舌附上齶之形)이다. 기일성문도의 그것과 글자꼴만 비슷할 뿐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 기일성문도의 다른 글자 ㄷ, ㄱ, ㄴ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르다. 기일성문도의 一은 훈민정음 중성자 一과 꼴이 같지만 그 성격은 아무 관계가 없다. 기일성문도의 ㄷ 역시 중성자 ㄷ와 형태만 같을 뿐 중성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위의 끝 단락에 나오듯이 一과 ㄷ를 각각 ‘天地’와 ‘陰陽’에 대응시키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훈민정음 중성의 ㄷ는 天을 상형한 것이고, 一은 地를 상형한 것이며 음양의 대립을 이룬다. 이 두 가지 점에서 기일성문도의 자형 一, ㄷ와 훈민정음의 중성자 一, ㄷ가 일정한 연관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기일성문도의 ‘衡, 從, 邪, 反, 折, 轉’과 같은 문자 운용 방식은 훈민정음 초성자나 중성자의 제자 방식과 크게 다른 것이다. 중성 기본자에서 초출자, 재출자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나, 초성 기본자에서 가획자를 만드는 방식은 기일성문도에는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세종대왕이 육서략을 참고했다 하더라도 글자꼴에 착안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기일성문도의 글자와 훈민정음의 글자는 그 성격이나 실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일성문도는 앞서 본 상형, 가획 등의 육서법보다 훈민정음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판단된다. 세종대왕은 기일성문도의 이런 방법을 이해하고 이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 훈민정음이란 새 문자 창안에 참조했을 것이다.²⁶⁾

중국의 한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국가의 공용(公用)문자였고 그 영향력도

막강하여 여러 모로 훈민정음 창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육서법 중 상형 등의 몇 개념이 창조적으로 변용되어 영향을 미쳤다. 훈민정음의 글자꼴이 네모꼴인 점도 한자 해서체의 네모꼴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에 합자법을 두어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쓰므로써 글자를 네모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문과 훈민정음을 섞어 써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3. 융합 요소의 작용 차원에 따른 고찰

2장에서 분석한 융합 요소가 구체적으로 문자 창제의 어느 차원(혹은 국면)에서, 어떤 성격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본장에서 고찰한다. 필자는 위의 여러 융합 요소가 작용한 차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각각의 차원에서 작용한 융합 요소의 기능과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3.1 세종의 애민 정신과 민본 정책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세종의 애민과 민본 정책이 있다. 백성의 문자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려는 세종의 애민과 민본 정신은 훈민정음 창제의 바탕 혹은 틀(거푸집)의 역할을 하였다.

3.2 창제 원리로서 작용한 융합 요소

위의 융합 요소들 중 훈민정음 창제를 위한 학문적 바탕 이론으로 작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보다 정밀한 이해를 위해 성리학의 이론 및 파스파 문자에 속하는 요소들을 좀더 세분하여 기술한다.

26) 공재석(1967:10)은 기일성문도를 포함한 한자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음의 표기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이 되는 부호(문자)를 만들어 이것을 가지고 반절과 같이 몇 글자 합하여 한 글자의 음성을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자방고전이라고 한 고전의 뜻이 기일성문도나 서법 같은 한자 중에서 간단한 부호의 글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강신항(1990:38 및 137쪽의 각주 6)은 정인지의 해례본 서문에는 한자 조자에 관한 기술을 『육서략』에서 그대로 가져온 구절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신항의 단행본에서 쪽수를 확인할 것. 수정증보판에서.

①삼재론: 천지인이란 삼재 사상은 성리학적 세계관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삼재론은 음절 구성 단위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눈 삼분법의 틀을 만들어 냈고, 종성부용초성의 원리를 설정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또한 삼재론은 중성 기본자의 자형을 결정하는 데도 작용하였다.

②음양론: 중성 기본자 ㆍㅡ를 천지와 음양에 대응시키고, 기본자가 결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 때 상하좌우의 위치에 따라 작용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해례본에서는 음양의 순환론을 종성부용초성의 이론적 근거로 삼기도 했다.

③오행론: 성리학의 오행론은 초성자 ‘아·설·순·치·후’라는 오음 체계 설정에 중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해례본에서 이 오음을 ‘수목화금토’라는 오행의 원리와 결합시켜 각 음의 음성적 성질을 규정한 것이 오행론의 구체적 적용 사례이다. 중성 11자에도 각각 오행이 배정되어 있다.

④상수론: 상수론은 중성 11자에 생성(生成)의 수를 부여하여 중성체계를 구성하는 이론적 틀로 기능하였다.

⑤파스파 문자의 삼분법과 종성법: 성리학의 삼재론과 함께 파스파 문자체계가 가진 삼분법은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 설정에 작용하였다. 훈민정음의 삼분법에는 전통적 차자법에서 이미 사용되어 온 종성 분리 표기법도 일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 파스파 문자의 종성법이란 초성을 종성에 다시 쓰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파스파 문자의 이 특성이 훈민정음의 종성부용초성 원리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경험 즉 차자법의 종성 분리 표기법도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3.3 음성체계 파악에 융합된 요소

①초성체계: 성운학의 성모 분류법[五音法]이 훈민정음의 아·설·순·치·후음과 반설음, 반치음의 설정에 작용하였다. 그리고 성운학의 청탁 분류법(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도 역시 초성체계 설정에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였다. 초성에서 가획의 근거로 설정된 ‘여’(厲)의 개념도 초성 체계 파악에 주요 기준이 되었다.

②중성체계: 중성체계를 파악하는 데는 독창적으로 개발한 개념이 훨씬 중요

하게 작용하였다. 설축(舌縮)의 정도(설축/설소축/설불축), 성심(聲深)의 정도(성심, 성천, 성불심불편), 구축(口蹙)과 구장(口張)의 개념이 중성의 대립 체계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성운학의 운모 개념 중 운복(韻腹)이 훈민정음 중성자의 음가 규정에 이용되었다. 예컨대 ‘·는 줌자 초발성이라’는 방식으로 한자의 음가를 빌려 국어 중성의 음가를 기술하였다.

한편 중성의 핵모음에 결합하는 반모음 요소를 훈민정음에서는 하나의 문자 단위로 삼지 않았다. 파스와 문자에서는 이른바 반모음에 해당하는 w와 j에 해당하는 글자를 별도로 만들었으나 훈민정음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이 점은 파스와 문자의 훈민정음 문자의 중요한 체계적 차이이다. 두 문자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차이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③중성체계: 훈민정음 해례본은 초성과 구별되는 별도의 문자를 제자하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쓰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세 가지이다. 첫째, 국어의 중성은 받침에서 발음되기도 하고 음절 두음으로 발음되기도 하는 자연스러운 발음 현상을 관찰한 것.²⁷⁾ 둘째, 파스와 문자 체계에서 초성을 중성에 다시 쓰게 한 것. 셋째 중성을 분리 표기한 전통적 차자법의 영향. 이 세 가지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부용중성의 원칙에 융합되어 있다.

3.4 글자꼴 결정에 융합된 요소

①초성자: 초성 기본자는 음성기관 상형(ㄱ, ㄴ은 혀가 움직여 닿는 조음방법을 상형하였고, ㄹ, ㅁ, ㅂ은 조음기관의 형상을 상형하였다. 이 상형의 개념은 한자 육서법의 상형과 차이가 크다. 육서법의 상형을 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성 가획자는 소리의 세기(勵)에 근거하여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꼴을 만들었다.

②중성자: 중성 기본자는 천지인 삼재의 형상을 본떠 글자꼴을 정했다. 이는 상형의 원리이기는 하되 초성의 경우와 그 내용상 현저히 다른 상형이다. 「기일

27) 예컨대 ‘입-도’에서는 ㅂ이 중성이고, ‘입-이’에서는 동일 낱말의 ㅂ이 초성으로 실현된다.

성문도」에서 중성자 · 및 一와 그 꼴이 매우 비슷한 점과 선을 각각 ‘天地’와 ‘陰陽’에 대응시키고 있는 바, 이것이 훈민정음 중성 기본자의 글자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검증하기 어렵다.

중성 초출자와 재출자의 글자꼴은 음양론에 기반한 기본자의 합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는 독창적 발상법으로 세종대왕의 창의적으로 성과라 할 수 있다. 기본자의 합성법 한자 육서법의 회의법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훈민정음의 글자꼴이 파스와 문자와 연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글자꼴이 서로 비슷한 것은 그 음가가 전혀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자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부호구결자 및 「기일성문도」에 나타난 부호의 형태가 훈민정음 글자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명백한 증거는 없다.

3.5 출처에 따른 융합 요소의 분류

위에서 분석된 융합 요소들을 ‘외래’, ‘전통’, ‘창조’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재분류해 볼 수 있다.

①외래적 요소

중국 성리학의 세계관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음양론, 오행론, 삼재론, 상수론 등은 언어 분석과 문자 창제의 사상적 배경이면서 기술적(技術的) 방법론으로 작용했다. 중국에서 유입된 성운학 이론(성모 분류법, 청탁 분류법) 그리고 중국 문자학의 육서법도 개념적 틀을 제공하면서 창조적으로 변용되면서 훈민정음 창제에 이용되었다. 몽고 문자를 표기하기 위한 파스와 문자의 음절 삼분법과 종성부용초성의 원리 역시 외래적 요소로서 훈민정음 문자체계에 융합된 것으로 간주된다.

②전통적 요소

이두, 구결, 향찰 등에서 이용되어 온 차자법의 전통이 신문자 창제의 동기로 작용하였거나 음소 분석 방법론으로 일부 활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종성을 분리하여 표기한 차자법의 전통은 파스와 문자의 음절 삼분법과 함께 훈민정음이 삼분법을 채택하는 데 작용한 요소로 파악된다.

③독창적 요소

세종대왕이 창안한 독창적 이론도 훈민정음 창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초성의 글자꼴 책정에 활용된 음성기관 상형법이 대표적인 독창 이론이고, 초성의 기본자와 가획자의 대립 관계에 설정의 기준으로 이용된 ‘厲’(세기)의 방법론도 역시 그러하다.

중성자 기본자의 글자꼴을 천지인과 결합시켜 책정한 발상법 역시 독창적 성취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성체계의 대립체계 파악을 위해 개발한 음성 분석법, 즉 설측, 성심, 구축의 개념들 역시 성운학에 없는 독창적 창안물이다. 중성 기본자에서 초출자, 재출자를 만들기 위해 고안한 합성법이 한자의 회의법과 약간의 연관성을 갖지만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것이어서 독창적인 방법론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융합 요소들의 작용 차원과 그 출처에 따라 그것이 가진 의미를 다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작용한 융합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그것이 어떤 역할로 기능하였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3.2부터 3.4절에 걸쳐 논한 여러가지 융합의 요소들은 각각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상호 중첩 혹은 교차(cross over)하면서 제자 과정에 참여했을 것이다. 예컨대 삼재론은 음절 삼분법과 중성 기본자의 글자꼴 책정, 중성부용초성의 원리 등에 중첩적으로 연관되면서 작용하였다. 중성부용초성의 원리에는 삼재론뿐 아니라 파스와 문자의 특성과 차자법의 중성분리 표기의 전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융합되어 있다. 초성 가획자(ㄱ, ㄷ, ㄴ 등)에는 육서법 가획의 개념과 성운학의 오음법, 중성 초출자와 재출자에는 음양론, 오행론, 상수론과 함께 육서법의 회의의 개념이 녹아 있다. 필자는 이 논문의 머리에서 융합을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화학적으로 교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융합 요소의 분석과 이들이 작용하는 차원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그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게 되었다.

4. 결론

1장에서는 먼저 융합의 뜻을 정리한 다음 한국의 전통문화에 나타난 특성의 하나가 융합성임을 보이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이어서 2장에서는 훈민정음이란 문자체계가 다양한 성분이 녹아든 융합체라 보고²⁸⁾ 융합 요소들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그것이 내포한 의미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융합 요소들이 작용한 차원에 따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해 보았다. 고찰 대상이 된 융합 요소 중에는 창제 과정의 일부 단계에서 작용한 것도 있고 창제 과정 전반에 걸쳐 작용한 것도 있다. 이어서 융합 요소들을 ‘외래’, ‘전통’, ‘독창’이라는 측면에서 분류해 그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이런 작업을 통해 우리는 융합 요소들의 작용 차원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지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훈민정음은 외래 학문의 여러 이론, 전통적 차자법 그리고 독창적으로 개발한 방법론 등이 창조적으로 수렴된 결정체이다. 본론에서 융합 요소들을 건축물에 비유하여 요약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훈민정음에 함축된 성리학적 이론(삼재론, 오행론, 음양론, 상수론)은 이 문자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었다. 건물에 비유한다면 기초(基礎)에 해당한다. 파스파 문자와 차자법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 음절 삼분법과 중성부용초성법은 건물의 대들보라 할 수 있다. 중국 성운학에서 가져온 아설순치후의 오음 분류법과 청탁법과 중성 분석을 위해 개발한 독창적 개념인 설축, 성심, 구축은 나무를 자르고 돌을 다듬은 도구에 해당한다. 초성의 글자꼴 책정에 이용된 발음기관 상형론과 ‘려’(厲)에 따른 가획법, 그리고 중성 기본자를 천지인 형상에서 본뜬 상형법 등은 건물의 디자인 방법론에 해당한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융합되어 ‘훈민정음’이란 집이 지어진 것이다. 이 집을

28) 이기문(1980:395)은 훈민정음은 15세기에 아시아의 문화와 학문이 우리나라에서 결정(結晶)된 정화(精華)라 하였다. 여기서 말한 ‘結晶’이란 용어를 필자는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체계화해 본 셈이다.

지은 세종대왕의 목적은 민생의 편리함을 도모코자 함이다. 세종이 지은 훈민정음이라는 구조물은 외래 학문의 여러 이론과 전통적 요소 및 독창적으로 개발한 방법론이 어우러진 융합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이란 문자 체계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세종대왕의 영명한 두뇌에서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이룩된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창조적 융합물을 산출했는지 그 내면의 원리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 강규선(2001),『훈민정음 연구』, 보고서.
- 강신향(1984/1996 증보/2003 수정증보),『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강창석(1989), 훈민정음의 제작과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울산어문논집』 5호,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49.
- 강창석(1992), 15세기 음운이론의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창석(1996), 한글의 제자원리와 글자꼴,『새국어생활』 6-2, 국립국어연구원, 19-35.
- 고인석(2010), 기술의 융합, 학문의 통합,『철학과 현실』, 봄호(통권 제84호), 철학문화연구소, 68-30.
- 공제석(1967), 한글 고전(古篆) 기원설에 대한 한 고찰,『중국어학보』 7, 한국중국어학회, 45-54.
- 권재선(1995),『훈민정음 해석 연구』, 우골담.
- 김무식(1993), 훈민정음의 음운체계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 논문.
- 김석환(1997),『훈민정음 연구』, 한신문화사.
- 김슬옹(2007), 훈민정음 영인본과 연구 문헌 목록 구성,『한글』 278, 한글학회, 139-224.
- 김완진(1975), 훈민정음의 자음자와 가획의 원리,『어문연구』 7·8 합병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일조각, 186-194.
- 김완진(1983),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대한 새 고찰,『김철준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 김완진(1998), 훈민정음 창제 복합 과정론, 발표 요지, 1-6.

- 김완진(1972), 세종의 어문정책에 대한 연구; 훈민정음을 위요한 수삼의 문제, 『성곡논총』 3, 성곡학술문화재단, 185-215. (김완진(1996)에 재수록.)
- 김완진(1975), 훈민정음 자음자와 가획의 원리, 『어문연구』 7·8 합병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일조각, 186-194.
- 김완진(1983), 훈민정음 제자 경위에 대한 새 고찰, 『김철준 박사 회갑 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353-366. (김완진 1996. 『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에 재수록.)
- 김완진(1984),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학교, 1-19.
- 김용표(2010), 동서종교사상의 화합과 회통 ; 원효의 화회(和會) 해석학을 통해 본 종교다원주의 -종교성의 공동기반과 심층적 대화원리-, 『동서철학연구』, 56, 한국동서철학회, 23-57.
- 남성우(1979), 중국운학과 성리학이 훈민정음 창제에 미친 영향, 『중국연구』 4집, 한국의국어대학교, 159-187.
- 박병채(1976), 『훈민정음』, 박영사.
- 박창원(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 송기중(2009), 꺾바(Phags-pa 八思巴) 문자와 훈민정음: 附 『몽고자운』, 『국어학』 54, 국어학회, 17-74.
- 안명철(2005),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기호론, 『국어학』 45, 국어학회, 213-241.
- 안명철(2006), 훈민정음 제자원리와 육서,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1-16.
- 안명철(2006), 훈민정음의 육서법,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44-58.
- 안병희(1990),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하여, 『강신항 교수 회갑 기념 국어학 논문집』, 135-145.
- 안병희(1990),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 대하여, 『강신항교수 회갑기념국어학논문집』, 135-145.
- 안병희(2002), 훈민정음(해례본) 3제,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173-197.
- 안병희(2004),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그 협찬자 『국어학』 44, 국어학회, 3-38.
- 안병희(2007), 『훈민정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王玉枝(2006), 元代 八思巴字의 正統性 考察, 『중국문화연구』 9, 중국문화연구학회, 243-267.
- 유창균(1966),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진단학보』 29·30, 진단학회, 371-390.
- 유창균(1977), 훈민정음과 팔사파자와의 상관성-훈민정음 기원의 측면, 『石溪趙仁濟博士還曆紀念論叢』, 回甲紀念出版委員會, 95-115.
- 유창균(1979), 『동국정운』, 형설출판사.
- 유창균(1989), 황극경세서가 국어학에 끼친 영향, 『석당논총』 1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69-102.
- 유창균(1998), 『훈민정음 역주』, 형설출판사.

- 이정희(2007), 八思巴字와 훈민정음의 공통 특징-편찬배경과 표음문자 중심으로, 『중국어 문학논집』 43, 중국어문학연구회, 169-186.
- 이근수(1995), 『훈민정음 신연구』, 보고사.
- 이기문(1974),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2, 국어학회, 1-15.
- 이기문(1980), 훈민정음 창제의 기반, 『동양학』 10,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388-396.
- 이승재(2001), 부호자의 문자론적 의의, 『국어학』 38, 국어학회, 89-118.
- 이정모(2010),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본 학문의 융합, 『철학과 현실』 봄호(통권 제84호), 철학문화연구소, 56-67.
- 이정호(1975), 『훈민정음의 구조원리 그 역학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 이중원(2010), 학문 융합 - 철학에선 어떻게 볼 것인가, 『철학과 현실』, 봄호(통권 제84호), 철학문화연구소, 44-55.
- 이현희(1991), 훈민정음의 이본과 관련된 몇 문제, 『어학교육』 21호,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59-74.
- 이현희(1997), 훈민정음, 『새국어생활』(국립국어연구원) 7권 4호, 237-253.
- 임용기(1992), 「훈민정음」에 나타난 삼분법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세종학연구』 7, 세종기념사업회, 73-97.
- 임용기(1996), 삼분법의 형성 배경과 ‘훈민정음’의 성격, 『한글』 233, 한글학회, 73-97.
- 임용기(1997), 삼분법과 훈민정음의 체계, 『국어사연구』(오수 전광현·송민 선생의 화갑을 기념하여), 태학사
- 임용기(2002), 「삼분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와 중성체계 분석의 근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애산학보』 27, 애산학회, 65-90.
- 전정례, 김형주 공저(2002), 『훈민정음과 문자론』, 역락.
- 정광(2008), 훈민정음 자형의 독창성-『몽고자운』의 八思巴 문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 국제학술 Workshop』(International Workshop on Hunminjeongeum and hPags-pa script),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강당, 豫稿集, 50-65.
- 정광(2009), 훈민정음의 중성과 파스파 문자의 모음자, 『국어학』 56, 국어학회, 221-247.
- 정광(2009), 『몽고자운 연구』, 박문사.
- 정희선(1983), 훈민정음의 역학적 배경에 관한 일고찰,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 최영애(2003), 몽고자운과 그 음운특징 - 15,6세기의 한국자료를 통하여, 『중국어문학논집』 24, 중국어문학연구회, 89-115.
- 홍운표(2005), 훈민정음의 ‘象形而字倣古篆’에 대하여, 『국어학』 46, 국어학회, 54-66.
- Ledyard, G. 1966/1998.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신구문화사에서 다시 발간(1998).